

조용한 선거·치열한 승부 ... 열전 13일 '스타트'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후보들 캠프별 출정식

광주·전남 '새정치 vs 무소속' 표심잡기 경쟁

선택 6·4 지방선거 D-13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2일 막을 올리면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여야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이날 각 선거 캠프별로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선거운동 기간 중 광주시장 선거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 간 표심잡기를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5월 22일	목	선거기간개시일
5월 23일까지	금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5월 26일까지	월	선거벽보 첨부
5월 26일까지	월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5월 26일	월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8일	수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5월 30일~31일	금토	사전투표
6월 4일	수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남도청 앞에서 '정의로운 시민 승리대회'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용한 선거운동' 진행=새누리당은 선거운동기간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로고송과 율동이 없는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다만, 후보들의 정책 동영상 유세차량을 통해 방영하고, 중앙당의 지원 유세는 진행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거기간 '국민을 지키겠습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규모 유세 및 로고송 및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치르기로 했다.

유세차량도 기존의 유세 중심에서 벗어나 '타운홀 미팅' 등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소품 등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도 세월호 참사를 담은 영상 유세차와 연설로 시민들을 만나고, 골목을 돌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심의 슬픔과 분노를 대변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와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들도 율동과 로고송을 자제하고, '찾아가는 유세' 중심의 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배우자, 사무장·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찌때,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확정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도 가능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 포스터 나왔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광주시장 출마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를 정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檢, 유병언父子 구인·체포영장 집행

금수원 대대적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중 2차장검사)은 21일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소환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잇따라 불출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정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신병 확보 차원에서 이날 정오께 금수원에 진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최근 금수원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 머문 만큼 도피 여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추적이 필요한 단서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의 구인영장과 대균씨의 체포영장에 더해 범일로부터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금수원 측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원활하게 수색이 진행됐지만 유씨 부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한때 머물렀던 '비밀병장'으로 알려진 금수원 인근 호미농조합의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수원 수색에는 인천지검 정순신 특수부장과 주영환 의사부장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 70여명이 동원됐다.

금수원 외곽에는 경찰 500여명이 배치돼 도주자를 차단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경찰 700여명도 대기시켰다.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측에서 농성을 풀고 수색에 협조한 것에 대해 "신도들이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무관하다는 주장을 거론했고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집단 자살이 구원파와 관계가 있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도들이 이번

탐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36일째
21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7편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에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도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금수원 진입 시점을 미루면서 유씨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유씨 검거도 중요하지만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 부자가 이미 서울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과 경찰 검거팀 인력을 확대해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서 평화통일 희망 봤다"

염수정 추기경 귀환 ... 추기경 사상 첫 방북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사진)이 21일 개성공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다. 우리나라 추기경의 첫 방북이다.

염 추기경은 이날 오후 5시 20분경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서 개성공단까지 60km 남짓한 거리"라며 "이 짧은 거리를 얼마나 멀게 살고 있는가 많이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염 추기경은 이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며 진실로 노력한다면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교구장과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염 추기경의 방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로 구성된 천주교 신자공동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허영업 신부는 "이번 방문은 교황님의 방한과 무관하며 개성공단의 신자공동체인 로사리오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목적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측 인사와의 접촉은 없었다"며 "개성공단 관계자를 위한 격려방문이었기에 미사는 봉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허 신부는 "추기경께서는 개성공단에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이 평화를 더욱 확산하는 역할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북단은 이날 오전 8시 30분 CIQ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에 들어간 뒤 약 8시간 가까이 머무르고 돌아왔다.

6·4 지방선거 표발 점검
전남도교육감 ▶4편
나주시장 ▶11편
화순군수·영암군수 ▶12편
/연합뉴스

“세월호 아픔 결코 잊지 않았습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임명일 후원회 권고
이 신문공고는 "명부(구명), 체포, 구명, 여파"에 관한 정보입니다.

“광주교육으로 살리겠습니다”

광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광주시교육감 여론조사 1위

양형일 30.2% > 장휘국 29.3% (연말 5개 기업)
(그 밖의 사항은 유망선거여론조사 운영실의 위촉 목적에 의해 실시)

학력사항
· 광주 대성초, 서중, 광주중교 졸업
· 조선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법학 전공)
· 미국 주립 호스톤대학 박사(행정학 전공)
(수학기간: 1994. 09~1999. 09)

경력사항
· 제11대 조선대 총장(전)
· 제17대 국회의원(전)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 예산특별위원회)
· 영국 서베르스터 대학교 교수(전)
· 광주YMCA 이사(전)

준비된 교육감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전, 국회의원

양형일 후원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8층 TEL. 714-1690
홈페이지 http://www.eduyang.kr

농협 302-0849-8663-21 예금주 양미숙(양형일후원회)

· 민원 이상 소액도 후원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는 후원할 수 있으며, 개인이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연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금액 비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 10만원 초과 시 후원금은 소액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내 10만원까지, 연간 100만원까지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역대 연봉 1만6000명

전국 16개 시·도 중 11·12번째 '하위권'

광주·전남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 숫자가 1만 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연봉자 숫자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11위, 전남이 12위에 그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경제 기반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역대 연봉자의 비율 역시 광주가 5위, 전남이 7위였지만 전국 평균에는 크게 못 미쳤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시·도별 총급여 1억원 이상 근로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의 역대 연봉자는 8539명으로 16개 시·도 중 11번째로 많았다. 전남은 7416명으로 광주에 이어 12번째였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15만23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1만2533명으로 2위, 울산이 3만250명으로 3위였다. 이어 부산이 1만9841명으로 4위, 경남이 1만3768명으로 5위, 인천이 1만3141명으로 6위였다. 역대 연봉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1669명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역대연봉자 비율을 따져보면, 광주는 1.67%로 16개 시·도 중 5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1.56%로 7위였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 평균인 2.35%에 크게 못 미쳤다.

역대 연봉자 비율 전국 1위는 울산이 차지했다. 울산은 2012년 귀속 분을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6.88%가 연봉이 1억원 이상이었다. 이 같은 역대연봉자 비율은 2위인 서울(3.91%)의 2배에 가깝고, 꼴찌인 제주(0.89%)의 7배 가 넘는 수준이다.

전국 평균인 2.35%를 넘는 곳은 울산과 서울, 경기(2.46%) 등 3곳에 그쳤다. /총행기자 redplane@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음악학과 아마레리 연주회
5월 22일(목) 7pm
광신대 진리관 4층 콘서트홀
광신대학교